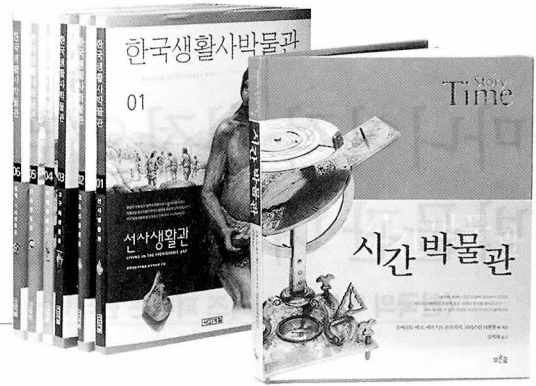


# 책과 박물관의 아름다운 만남

〈한국생활사박물관〉 시리즈와 〈시간 박물관〉



박물관에는 과거의 기억들이 모여 산다. 그 기억의 덩어리들은 당대의 맥락에서 떨어져나와 유물로 몸을 바꿔 지나간 날들을 말없이 증언한다. 박제된 유물들은 차가운 유리 뒤에서 제 한몸으로 힘겹게 소멸해가는 기억들을 붙들고 있다. 박물관이 기억의 방식으로 시간에 저항한다면, 책도 마찬가지다. 책은 종이의 몸을 빌어 인간과 세계의 열망을 증언한다. 책과 박물관이 형태는 다를지언정 그 역할이 겹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한국생활사박물관〉 시리즈(한국생활사박물관편찬위원회, 사계절, 이하 〈생활사박물관〉), 《시간 박물관》(움베르토 에코 외, 김석희, 푸른숲)은 박물관과 책의 아름다운 만남을 기념하는 의미 있는 책들이다. 더욱이 역사에서 소외된 갑남을녀들의 삶과 시간을 '중이박물관'에서 만나도록 이끄는 것은 경이롭기까지 하다.

## 박물관과 종이책의 장점 살린 '책 속의 박물관'

사계절이 의욕적으로 펴내는 〈생활사박물관〉은 기존의 역사책이 보여준 지루한 연대기적 서술, 추상적인 설명은 배제했다. 반면 고증은 엄밀하게, 유적과 유물 자료는 박물관을 그대로 재현한 듯 풍성하다. 옛집의 기와 하나, 옛사람들의 옷매무새 하나까지 구체적으로 복원했다. 이처럼 방대한 정보와 요소들을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택한 형식이 '책 속의 박물관'이다.

〈생활사박물관〉이 생활사 중심의 역사를 시대별로 엮었다면, 《시간 박물관》은 인류 문명사를 시간의 창조로 들여다본다. 본래 이 책은 영국 그리니치천문대와 국립해양박물관이 새로운 밀레니엄을 맞아 기획한 '시간 이야기' (The Story of Time) 특별전의 내용을 담은 전시회도록인데, 단행본도 함께 출간됐다. 과학·예술·역사·철학·문화 분야의 내로라하는 세계 석학 24명이 필진으로 참여해 문명의 창세기부터 인류가 시간을 어떻게 자각하고 측정해왔는지 시대별·지역별로 정리했다.

종이책의 장점을 살린 편집, 읽는 재미에 보는 즐거움을 더해주는 영상이미지의 절묘한 결합은 이 책들의 공통된 특징. 박물관 형식을 도입해 평면적인 종이책의 한계를 뛰어넘고,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해 독자들을 자연스럽게 종이박물관으로 이끈다. 무엇보다 인터넷시대에도 책만이 지닐 수 있는 흡입력에 빠져들게 한다는 것이 이 책들의 최대 미덕이다.

## 다양한 화보·설명으로 시각 효과 높여

〈생활사박물관〉은 박물관 네트워크 형식을 책 속에 구현해 눈길을 끈다(여기선 시리즈 1권 《선사생활관》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첫장을 펼치면 박물관 내부 조감도와 함께 주제별 생활관 안내가 나온다. 가상 박물관의 안내데스크를 지나면 마치 오프라인 박물관 뜰에서나 만날 듯한 '야외전시'가 보인다. 야외전시는 시리즈 전체의 도입부. 선사시대부터 현대에 이르는 인간생활의 기본 특징을 시원한 사진과 그림을 통해 대략적으로 짚어준다. 본격적인 박물관 기행은 '구석기실' '신석기실' '특별전시실'로 나뉜 전시PART 1부터 시작된다. 그 가운데 '특별전시실'은 사냥과 고기잡이를 주업으로 삼았던 선사인들의 생활상을 울산 대곡리 바위그림을 컴퓨터그래픽으로 재현해 보여주고, 같은 시대 다른 지역의 바위그림들도 소개해 입체적으로 비교분석한다. 전시PART 2는 심화학습의 장이다. '가상체험실'에서는 유물발굴과정, 그 당시 일어났을 법한 사건을 다채로운 그림 자료를 통해 체험할 수 있다. '특강실'은 다시 두 파트로 나뉘어 앞에서 다루지 못한 조금 어려운 주제들을 자료사진을 곁들여 재미있게 풀어준다. 마지막 '국제실'에서는 선사시대 인류 전체의 생활사를 도표와 사진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준다.

《시간 박물관》은 시간의 창조·측정·묘사·체험·종말 등 다섯장으로 나뉘어 시간과 문명의 역사를 조명한다. 신비로운 시간 박물관의 문을 열어주는 움베르토 에코의 서문을 지나면 각 문명권별 창조신화를 바탕으로 인류의 시간관을 살핀 '시간의 창조'와 마주한다. '시간의 측정'은 이 책의 중심부분으로 인류가 시간을 체계화하기 위해 기울인 노력들의 결과물인 시계와 달력의 발달사를, '시간의 묘사'는 오랜 세월을 통해 미술가들이 시간을 어떻게 표현해왔는지 보여준다. '시간의 체험'은 인간의 삶을 지배한 또 다른 시간, 생체리듬과 노화 등에 대해 살폈고, '시간의 종말'은 여러 문화권에 스며있는 종말에 대한 생각들을 정리했다.

《시간 박물관》의 미덕은 일부러 박물관임을 드러내지 않는 데 있다. 짜임새 있는 구성을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레 고대 이집트 달력부터 최신 허블망원경까지, 인류와 함께 해온 시간의 흐름을 조망할 수 있다. 4백여컷의 컬러화보들은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캡션을 달고 있어 캡션을 읽는 것만으로도 시간과 문명에 대해 깊이 있게 접근할 수 있다. —박옥순 기자